

잠기고 ... 무너지고 ... 끊기고 ... 묻히고 '물폭탄'에 강원 사찰 큰 피해

전국을 강타한 '물폭탄'은 주로 강원지역 사찰에 큰 피해를 입혔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전통사찰 제 25호인 인제 백련정사 요사채가 반파됐고, 전통사찰 제28호인 양양 영철사 경내 축대와 법면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조계종주도의 국사가 주축했던 양양 진전사 진입로 노반이 침하했고 사찰 계획 일부가 유실됐다.

인제 백담사의 경우 한 때 전기와 전화가 끊이기도 했다. 또 매표소에서 사찰까지 진입하는 도로에 흩터미가 쌓여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양양 낙산사는 관음전 축대가 붕괴되고 의상대로 가는 산책로 주변 경사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 포장을 덮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기습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평창 천태종 진강사 원통보전.

추가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진부 시내에 위치한 평창 월정사 유취원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 강원지역에 내린 기습 폭우로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에 위치한 천태

종 진강사의 원통보전이 산사태로 크게 소실됐다.

100 평 남짓한 원통보전은 뒷산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건물들 덮쳐 원통보전 안에 모셔져

있던 불상과 탱화 등이 흩터미에 파묻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찰 경내도 침수되지는 않았다.

또 인제에 위치한 천태종 강화사는 산사태로 해우소가 매몰되고 창고가 주저앉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강화사는 7월 15일 뒷산인 기동산 계곡 양쪽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이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17일부터 인제군청에서 계곡을 임시로 막고 창고 앞 주저앉은 부분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임시 복구 작업을 펼쳤다. 이외에도 동해 만리사는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해우소 축대가 무너졌다.

한편 인제 과학화물연단 호국 응봉사도 8월 15일을 준공 목표로 법당을 건립하던 중 산사태가 나 진입로 일부가 유실됐다.

김주일·박봉영·남동우 기자

“사찰 경영기법 도입 불교가치 살리는 일”

실천불교승가회, 사찰경영 첫 세미나

“사찰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불교의 기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살리는 중요한 활동이다.”(구병진 경영학 박사) “잘 되는 사찰 20%와 어려운 사찰 80% 비율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정웅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

“주지스님의 그대로 계승한 분신, 즉 신도 중 핵심인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이를 조직화하는 것이 신도경영의 핵심이다.”(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

7월 20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법보신문 공동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사찰경영 연구 세미나에서 쏟아진 사찰경영에 관한 조언이다.

변화된 사찰운영환경 흐름을 분석하고 사찰경영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정웅기 부소장은 “고객이자

자원이기도 한 신도자원이 매우 폭넓게 존재하는 종교단체만의 특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전략, 전반적인 사찰경영 혁신 전략 수립이 보다 시급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은 “사찰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더라도 종교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불교CEO인 주지스님들이 신도들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획, 교육, 조직화를 실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병진 박사는 “서양 자본주의에서의 경영기법 보다는 경전에 제시된 경제·경영에 대한 지혜와 기술을 사찰경영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세속적인 일로

치부하는 ‘사찰의 경영’을 처음으로 토론장으로 끌어냈는데 세미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사찰경영에 대한 진단이 부족하고 사찰경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추후 2차, 3차 세미나를 통해 사찰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일본·대만 등 선진 사찰의 사례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천안 광덕사·안양암 광덕산 보호소승 승소

법원이 천안 광덕산 중턱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의 사찰 경내지 통행을 막아 난개발을 막으려던 광덕사와 안양암의 손을 들어줬다.

불교환경연대는 7월 19일 “광덕산 전통사찰 광덕사와 안양암이 환경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광덕산 중턱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1심 판결에 이어, 2심인 대전고등법원도 7일 광덕사와 안양암의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1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난개발을 막으려는 사찰의 경내지 통행 방해를 수행환경권과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판단한 것이다.

2004년부터 광덕사, 안양암, 환경단체와 함께 광덕산 중턱 건축물 신축을 반대해 온 불교환경연대는 “천안 광덕산이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천안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전통사찰 광덕사와 안양암의 수행환경 수호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현재 광덕산은 건설교통부에서 ‘광덕산 자연공원’ 지정을 심의, 검토되고 있다.

박봉영 기자

국제패트럴 잼버리 기간 대회장에 불교관 운영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남 순천 청소년수련소에서 열리는 제2회 국제패트럴 잼버리 기간에 불교관이 개설, 운영된다.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송기원)는 대회장에 불교전시관을 설치해 불교관련 미술품 및 불교용품 전시하는 한편, 상설법당을 마련해 예불과 참선, 108배 등과 단주 및 연꽃등 만들기 등을 통해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또 8월 12일 불교인의 밤, 13일 큰스님 초청법회 등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불교관 12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3개국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한명우 기자

금산사 미륵전 보살상 등판 떨어져

400년된 소조불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미륵전에 있던 보살상 등판부위 일부가 괴리되어 떨어져 나갔다(사진).

주지 원행 스님은 “지난 16일 밤, 400년 전 흙으로 조성된 좌보처 법화림(法花林) 보살상 왼쪽 어깨부위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며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보살상은 높이 8.79m 크기의 거대한 불상으로 이면에 넓이 1m, 길이 3m 가량의 등판부위 흩어지고 있었다. 금산사의 전라북도 “불두와 정면은 손상이 없어 불행 중 다행으로 원형 보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문화재청에 긴급 보수작업을 건의했다.

금산사 성보박물관 김미란 학예사는 “미륵전 보살상은 목조형체에



흙으로 삼을 붙여 조성한 소조불(塑造佛)로 계속된 장마에 목재부위와 흙 부분이 괴리되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화림 보살상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우보처 대묘상(大妙相) 보살상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사 미륵전은 국보 62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으나 법당 내부에 있는 삼존불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아 시급한 지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준엽 기자

고국 온 조선왕조실록 국보된다

지난 7월 7일 일본에 강탈된 지 1세기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이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7월 19일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분과를 열어 오대산사고본을 기존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에 덧붙여 국보로 지정·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대산사고본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경 문화재위원회 분과에서 문화재로 최종 지정된다.

한편 오대산사고를 관리해 오던 월정사는 7월 2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환수고유제 및 국민환영행사’를 집중호우로 인해 8월 11일로 연기했다.

노병철 기자

통도사 '아미타여래...'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7월 18일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를 보물로 지정하고, 안압지 출토 금동관불상 일괄(10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보물1472호)는 필치가 섬세하고 유연함이 돋보이며 통도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의 불화 제작을 주도한 화사 임한(任閑)이 제작한 불화로 이른바 ‘임한파’ 화풍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안압지 출토 금동관불상 일괄(10점)은 조각수법이 우수하고 상이 사실적으로 표현됐으며 양식적으로 7세기 말 통일신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국제적인 조각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노병철 기자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

3기 방승위원회 출범

말 많고 달 많은 3기 방승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했다. 방승위원회는 7월 14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회 방승위원(前 방승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제3기 방승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민희 위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부위원장 등으로 선출했다.

강동순(KBS감사) 전총장(중앙방송 사장) 주동향(평운대 교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밖에 마권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동기 변호사, 임동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 김우룡 한국외대 교수 등이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3기 방승위원회 소속 위원 가운데 임동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이 불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연 기자

생활속에서 깨닫는 길이 참선에 있다

삼매체험 참선수행 30주년 - 참선 단식 7일간 집중수련

단기간 집중정진으로 참선수행 길을 찾는다 - 화두의심을 지어갈 줄만 알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 득력하는 것은 하루아침 해장거리다. 화두의심만 바로 시작하면 깨달음안으로 들어가는 심지공부 - 세속의 모든 번민과 욕망 정신적 갈등에서 벗어난다.

금강단식과 참선의 특징과 효과

1. 예비단식 보식이 없다 - 단식 시작전 준비단식이 없고 단식종료후 곧 바로 정상 식사가 가능
2. 단식으로 식욕을 해결하면 정신이 손에 잡히듯 분명해진다 - 정신을 모르고 살면 세상에 태어나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철이 들기전에 세상을 마치게 된다.
3. 정신적으로 심약한 사람은 의지력 인내심 추진력 자재심이 배양되고 화내고 성냄을 고치고 자신감 신념을 증대한다. 초월적인 능력발휘, 성격전환
4. 금강단식은 일반 단식의 부담을 줄여서 쉽게 할 수 있어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없다 - 체질개선 당뇨 고혈압 약 끊고 가능하며 피부질환 등 피부가 강해져서 치료 미용효과 크다. 체중감량은 하루에 0.5kg~1kg가능
5. 단식을 겸한 참선은 화두의심이 집중되어 가볍게 접근된다.

6. 정신과 신체의 개벽이라 할 만큼 변화가능함. 직장 가정 사회생활과 부적응에 대한 해결과 전환이 용이함
 7. 통화후 차수를 정하고 항공편 예약 가부전화요함
 8. 기타 자세한 것은 문의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기 바람.
1. 홈페이지 : www.wseon.com 원명선원.kr
 2. 대상 및 인원 : 고교(사전확인요함)이상 일반인 70명
 3. 수련일정(6박7일)
 ◆ 1차 : 06. 7. 31 ~ 8. 6 ◆ 2차 : 8. 10 ~ 8. 16 ◆ 3차 : 8. 17 ~ 23
 4.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조계종 원명선원(고현고 옆) 064)755-3322
 5. 회 비 : 후원금으로 받음(생계가 어려운 자는 혜택이 있음)

❶ **즉심즉각 자성불도량 원명선원**